

보도시점 3.25.(수) 조간 < 3.24.(화) 15:00 >

중기부 복지부 협업으로 제약바이오벤처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

- 모두의 창업 연계, 중기부·복지부 합동 정책간담회 개최(3.24)
- 창업·투자·R&D·임상진입·글로벌 진출까지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의 후속으로 3월 24일(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되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의 자금 단절, 기술사업화의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중기부와 복지부는 기업 성장 단계와 신약개발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여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K-바이오 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약바이오기업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중기부와 복지부는 양 부처의 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이른바 “4UP(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혁신자금 공급을 통한 스케일업, ②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 ③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④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설계를 통한 시너지업의 4가지 전략이다.

① 혁신자금 공급을 통한 스케일업

민간 운영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정부가 후속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팀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를 양 부처가 공동 발굴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추가 평가 없이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향후 임상 진입까지 자금 확보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 등에서도 우대한다. 나아가,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가 임상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고한다.

②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

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간 협업 탐색 단계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술거래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국내기업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스턴 CIC, 쇼난 아이파크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의 기술거래 단계별(비밀유지계약(CDA) 체결 전 → 체결 후 → 기술거래 계약 이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26년 신규, 104억 원)

국내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약벤처, AI벤처, 제약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유인을 강화한다. AI벤처-제약벤처, 제약사-벤처 간 협업 R&D를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등을 추진한다.

③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연구개발 인프라와 규제 개선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연구장비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간 연계를 위한 벚추얼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 기반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개선하는 한편, 제약바이오벤처 특화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정밀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기업, 연구기관, 병원, 투자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④ 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를 통한 시너지업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초기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 또는 공백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AI 활용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하여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협업을 촉진하고,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 또한 신규로 마련하여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부처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임상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협력, 사업화가 제때 이어지지 못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빠른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망 제약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혁신이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성장이 다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학 (044-204-7740)
		담당자	사무관	장희수 (044-204-7168)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방우식 (044-202-2970)

(I) (추진 배경) 제약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는 지원 전략을 부처 협업으로 마련,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 (시장 상황) 글로벌 의약품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며, 우리나라도 제네락·CDMO를 거쳐 블록버스터 의약품 출현** 등 글로벌 시장 본격 진입

*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5.4천억 달러)의 3배, 조선(1.4천억 달러)의 12배 수준('23년)이며 '28년까지 연평균 4.7% 이상 성장 예상

**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램시마 1.2조 원 매출('24), (혁신신약) 유한양행·오스코텍 렉라자 美 FDA 허가('24.8)

- (벤처 역량) '18~'23년 바이오 기업공개(IPO) 건수는 43건으로 일본(9건)의 4.8배 수준, 역동적인 시장 상황 고려 시 성장 기대치가 높음

* (기술수출) '25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은 22건, 21조 1,451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중전에는 '21년도가 14조 51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 (기회 활용) 그간 축적한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신약개발 초기 단계를 수행하는 제약바이오벤처의 역할이 중요

* 국내 의약품 파이프라인 3,233개로, 미국(11,200개) 중국(6,098개)에 이어 세계 3위('24)

(II) (현황 및 시사점) 부처의 기존 지원사업과 강점을 살려 협업구조를 마련하고 신규사업 기획 시 시너지 창출 기대 가능

- 중기부는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R&D 자금 지원에, 복지부는 산업생태계 협업 및 성과창출 병목구간* 타겟팅 지원에 강점

* 신약개발의 성패가 갈리는 임상 단계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병원 인프라 연계,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등 지원하여 빠른 결과 도출 촉진

- 부처 강점을 연계하여 협업기반의 전주기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체계 마련 시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 창업·기업 육성 노하우 보유한 중기부와 의약산업 전문성 보유한 복지부 간 협업으로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

(III) 핵심 추진과제

- ① 혁신자금 공급으로 막힘없는 스케일업
- ② 개방형 혁신으로 성과창출 스피드업
- ③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 ④ 현장 중심 정책설계 협업으로 시너지업

① 혁신자금 공급으로 막힘없는 스케일업

- ① (R&BD 지원) 양 부처의 R&D·사업화자금을 매칭·연계하여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풍부한 자금 지원

* 예) 스케일업 탑스 선정 기업에 R&D 20~30억원 지원하고 복지부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패키지, 복지부중기부바이오헬스 인프라, 중기부수출바우처 등 추가 매칭

- ② (기술평가·보증) 제약벤처의 단기유동성 애로 완화를 위해 기술 평가 기반으로 맞춤형 보증 공급

- ③ (펀드) 중기부·복지부 펀드 연계 강화로 제약바이오 정책펀드가 단계별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② 개방형 혁신으로 성과창출 스피드업

- ① (글로벌) 국내 제약벤처와 글로벌 빅파마 간 오픈이노베이션의 전 단계(협업탐색~기술거래 계약) 지원체계 구축

- ② (국내) 양 부처의 지원사업·인프라 등을 결합해 제약바이오벤처와 제약사·AI 벤처 간 협업 유인을 강화

③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 ① (자원·네트워크 공유) 장비·데이터 등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유망기업을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와 연결

- ② (제도기반강화 협업) 개선수요가 높은 규제들을 공동 발굴 및 개선 추진하고, 주요동향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④ 현장 중심 정책설계 협업으로 시너지업 : 초기 스타트업 육성 협업

- ① (공동 사업 기획) ① 제약벤처-제약사 AI기반 공동 R&D, ②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사업 신설 추진

